

부활의 의미와 영접의 의미

요한복음 11:23-27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분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천명을 주셨사오니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며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1 장 전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나사로와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잘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11 장 53 절에 보면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부활의 의미와 축복 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부활절이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오늘 입교식과 세례식도 있는데, 입교와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평생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전도제자들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리겠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의미와 영접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부활과 영접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초대교회처럼 영접운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1.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1)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많은 성도들이 불안전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들의 대속과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사역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이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때 나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나 로마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숨기고 방해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나의 구원도 완성되는 것이다.

(2)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1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또, 베드로 사도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 주었다. 사도행전 9 장 40 절이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또한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 하는 청년을 살려주었다. 사도행전 20 장 9 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었다. 사도행전 20 장 12 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있는 개인, 가정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누가복음 7 장 11 절에서 17 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 구약성경에도 열왕기상 17 장 22 절에서 23 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온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렇다면 나사로, 다비다, 유두고, 나인성 과부, 사르밧 과부의 아들들은 부활한 것일까?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소생한 것이다. 부활이란, 부활체로 변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소생이란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죽는다. 부활체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홀연히 변화되어 이제는 다시는 병들지 않으며 죽지 않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만 있는 상태도 아니고 육적인 것만 있는 상태도 아니다. 영과 육이 온전히 합일이 된 상태가 부활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는 사망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는 것이다. 이 축복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1 장 25 절에서 26 절을 보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4)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8 장 11 절을 보겠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5)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6 장 14 절을 보겠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결국 부활사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이다.

(6)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부활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나 윤리, 도덕이 아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로마서 10 장 9 절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7) 그러면서 부활은 복음전파의 핵심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 향기, 편지가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당시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도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전도의 핵심메시지였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이었다. 사도행전 17장 3 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3 장 14 절에서 15 절을 보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충만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관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사도행전 3 장 14 절에서 15 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몇 달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신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드린다.

(8)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행복하게 살 것이다. 요한계시록 21 장 5 절을 보겠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전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은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할 천명을 받았다. 과거의 많은 유럽의 나라들에게도 복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사라지고 교회는 문을 닫으며, 이단이 일어나고 있다. 이때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탄의 나라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2. 두 번째로는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부활을 믿지만 하면 자신은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부활은 믿지만 생명운동, 영접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추하건데, 첫 번째는 진정으로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접의 의미와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스펀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 속에서 단 오 분만 주님이 떠나시면 내 마음은 마귀의 공장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24 시간 성령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임마누엘의 시작이 영접이다. 미국으로 망명한 스탈린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생존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복음이 없어서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나 가장 중요한 인생 최대의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 번 영접의 의미 12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1) 영접이란 '성령의 영원한 내주'이다. 이는 창세기 1 장 26 절에서 28 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생육, 번성, 충만 하라는 원래의 축복의 회복이다. 즉, 창세기 3 장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순간이다.

(2) 영접이란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떤 빛일까. 요한복음 1 장 4 절과 9 절에서 그 빛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빛, 창조의 빛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영접하는 순간 영접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1 장 2 절과 같은 흑암, 혼돈, 공허가 영접 이후에는 창세기 1 장 3 절의 질서와 생명의 빛으로 변하게 된다.

(3)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영접한 후에는 기도응답을 받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 기도제목도 적고, 기도응답을 체험해야 한다.

(4) 그러면서 영접이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이며, 선포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이다.

(5) 이 영접의 사건은 사탄과의 영원한 결별이다. 영접 이전에는 사탄의 종노릇하였지만 베드로전서 5 장 8 절에서 영접 이후에는 사탄과 대적관계로 변하게 된다. 즉 이제는 사탄과 영적싸움으로 싸워야 되는 신분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6) 창세기 3 장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순간이다. 법적으로 해방되는 것이다. 로마서 8 장 2 절 말씀처럼 영접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이다.

(7)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영접의 사건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다. 베드로전서 1 장 9 절과 디모테전서 2 장 4 절이다.

(8) 그러나 사탄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 장 19 절 말씀처럼 사탄을 꺾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9) 그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3 장 16 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0) 영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11)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순간이다. 에베소서 1 장 13 절, 4 장 30 절, 시편 48 편 14 절, 요한복음 14 장 16 절에서 17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2) 결국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 요한복음 1 장 12 절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론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 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최고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최고의 비전은 237 나라와 5 천 종족 즉,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24 시간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을 해야 한다. 그 때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자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다시 한 번 부활절 후 40 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마가다라방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현장을 치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과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21 세기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밝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